

<제7강>

단어 형성법

1. 단어의 짜임

단어 r 단일어 : 어근(root)

- └ 복합어 r 파생어 r 접두파생어 : 접두사+어근
 - | (R+A) └ 접미파생어 : 어근+접미사, 합성어+파생접사
 - └ 합성어 r 의미 r 대등적합성어
 - (R+R) | └ 종속적합성어
 - | └ 융합합성어
 - |
 - └ 배열 r 통사적합성어
 - └ 비통사적합성어

(A=affix)

- 1) 단일어(單一語) :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 산, 하늘, 높다, ...
- 2) 복합어(複合語) : 어근과 파생접사로 구성되거나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 (1) 파생어(派生語) : 어근과 파생접사로 구성된 단어.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가 있다. 꽃-사랑, 옷-음, 드-높다, [시-[[부][모]], [[[공][부]]-하-], [[[평][화]]-적], ...
 - (2) 합성어(合成語) :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 논밭, 학교(學校), 작은아버지

<참고> ‘높-+-다’ 두 형태소의 결합이지만 어간 ‘높-’만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볼 수 있다. 국어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항상 어미를 가지고 나타나며 어미는 순수하게 문법적인 기능만 하므로 단어 형성에서는 어미를 배제하고 논의한다.

- 3) 접사(接辭)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¹⁾
 - (1) 파생 접사 : 단어형성에 기여하는 접두사와 접미사. 파생접사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새로운 단어이므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다.
 - (2) 굴절 접사 : 문법적 기능을 하는 어미로 단어를 형성하는 기능은 없다.

예) 치숫다 → 치-(파생 접사)/ 숫-(어근)/ -다(굴절 접사)
- 4) 파생접사의 종류

1) ① 접사는 좁은 의미로는 파생접사만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굴절접사와 파생접사를 모두 포함. 단어 형성에서의 접사는 좁은 의미의 파생접사를 지칭한다.(어근+접사)
 ② ‘어근’은 단어형성론에서 사용하는 개념, 어간은 활용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근과 ‘접사’는 의미의 중심 여부에 따른 분류이고, ‘어간’과 ‘어미’는 활용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1) 위치에 따라

- ① 접두사 : 어근 앞에 놓이는 파생접사. ‘꽃-, 드-, 개-, 휘-, 새-, ...’
- ② 접미사 : 어근 뒤에 놓이는 파생접사. ‘-답-, -뜨리-, -음, -이, -질, ...’

(2) 품사의 전성 여부에 따라

- ① 한정적 접사 : 뜻만 첨가해 주는 접사.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같다. 이런 파생을 어휘적 파생이라 한다. 예) 꽃사랑, 드높다, 잠꾸러기, 가위질
- ② 지배적 접사 : 품사를 바꾸어 주는 접사.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다르다. 이런 파생을 통사적 파생이라고도 한다. 예) 웃음, 정답다, 가난한다.

[직접 구성 요소(이익섭, 1986:145-147)]

형태소가 모여 단어를 이루거나 단어가 모여 구나 문장을 이룰 때와 같이 구성 요소가 모여 하나의 구성을 이룰 때 그 구성 요소들이 묶이는 방법은 층위적이다. 이 때문에 어떤 구성의 구조를 바로 파악하려면, 이 층위를 밝혀서 그 묶임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개념이 직접 구성 요소 또는 직접 성분 (Immediate Constituent : IC)이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개었을 때의 그 각각을 말한다. [금+[목+[결+이]]], [[맨+손]+체조]

2. 단어 형성법

1) 파생어

- 개념 :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 종류

(1) 접두파생어

① 접두사의 특징

- ㄱ.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한정적 접사로, 품사를 바꿀 수는 없다.²⁾
- ㄴ. 접미사에 비해서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분포에 있어서도 명사, 동사, 형용사에만 존재하고 있다.

② 접두사의 종류

- ㄱ. 관형사성 접두사 - 체언(명사)과 결합하며, 관형사적 기능을 한다.
예) 군소리, 날고기, 맨손, 돌배, 한겨울
- ㄴ. 부사성 접두사 - 용언과 결합하며, 부사적 기능을 한다.
 - a. 접두사 + 동사 : 짓누르다, 엇보다, 치솟다
 - b. 접두사 + 형용사 : 새까맣다, 알밋다, 드높다

2) 극소수지만 접두사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도 존재한다. 예) 메마르다, 강마르다, 숫되다, 엇되다(동사 → 형용사)

③ 접두사와 관형사/부사의 차이점

- ㄱ. 분리성 유무 : ‘관형사/부사 + 피수식어’ 사이에는 새로운 관형사나 부사가 끼어들 수 있으나, ‘접두사 + 어근’ 사이에는 끼어들 수 없다.(하나의 단어이기 때문)
- ㄴ. 분포의 한정 : ‘관형사/부사’는 거의 모든 피수식어와 연결될 수 있으나, ‘접두사’는 분포상의 제약이 심해서 몇몇 어근에만 결합한다.
예) 덧신, 덧버선, *덧책, *덧사람 / 새 신, 새 버선, 새 책, 새 사람

④ 접두사의 의미

- ㄱ. 왕- : ‘보다 큰 종류’(왕개미) 또는 ‘매우 크거나 굵은’(왕모래), ‘매우 심한’(왕가뭄)의 뜻을 더하는 말.
- ㄴ. 돌- : ‘품질이 나쁜 것’ 또는 ‘산과 들에서 저절로 생겨서 사람이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말.
- ㄷ. 홀- : ‘짜이 없고 하나뿐’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ㄹ. 시- : ‘시집’의 뜻을 나타내는 말
- ㅁ. 양- : 서양 및 동양, 특히 ‘서양’을 줄여서 이르는 말
- ㅂ. 올- : ‘열매가 보통 것보다 일찍 익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ㅅ. 풋- :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풋고추, 풋나물)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을 나타내는 말 (풋사랑, 풋잠)

(2) 접미파생어

① 특징

- ㄱ. 뜻을 더하는 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기능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
- ㄴ.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가 많고, 어근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가 유연성이 있을 때는 접미사의 원형을 밝혀 적고(규칙적 접미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불규칙적 접미사)

[한글 맞춤법 : 생산적 접미사의 표기]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 길이 깊이 높이 다듬이 땀받이 달맞이 먹이 미달이 벌이 벼훅이 살림살이 쇠붙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 ▶ 걸음 묶음 믿음 얼음 엮음 울음 웃음 졸음 죽음 앓 만들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좋이 짓궂이
4.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 ▶ 밝히 익히 작히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 굵다리 다리[髭] 목거리(목병) 무녀리 코끼리 거름[비료] 고름[膿] 노름(도박)

[붙임] 어간에 ‘-이’나 ‘음’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명사로 바뀐 것

▶ 귀머거리 까마귀 너머 뜨더귀 마감 마개 마중 무덤 비렁뱅이 쓰레기 올라미 주검

(2) 부사로 바뀐 것

▶ 거뭇거뭇 너무 도로 뜨덤뜨덤 바투 울긋불긋 비로소 오긋오긋 자주 차마

(3)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

▶ 나마 부터 조차

②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ㄱ. 명사 파생법

(ㄱ) 명사 + 접미사(-아지, -님, -꾼, -질, -스럽-, ...)

장사꾼, 장난꾸러기, 뚱뚱보, 유기장이, 양복쟁이, 가위질, 교사질, 창피스럽다

(ㄴ) 동사/형용사 어근 + 접미사(-개, -보, -이, -음, -기, ...)

오줌싸개, 울보, 놀이, 묶음, 밝기, 웃음, 달리기, 개구리

ㄴ. 동사 파생법

(ㄱ) 명사+접미사(-하-, -되-) : 사랑하다, 건설되다/잘하다, 못하다/ 두근두근하다, 중얼중얼하다/ 구하다, 망하다/ 좋아하다

(ㄴ) 상징부사+접미사: 꿈지력거리다, 머뭇거리다 / 꿈지력대다, 비틀대다 / 글썽이다

(ㄷ) 강세접미사(-뜨리-/ -트리-) : 깨뜨리다, 떨어뜨리다/깨트리다, 떨어트리다.

(ㄹ) 피동접미사(-이-, -히-, -리- -기-) : 쌓이다. 먹히다, 팔리다, 안기다.

(ㄹ) 사동접미사(-이-, -히-, -리-, -기-) : 높다. 굽히다, 돌리다, 남기다.

ㄷ. 형용사 파생법

어근+접미사(-롭-, -되-, -답1-, -답2-; 기타)

보배롭다, 참되다, 정답다, 어른답다, 어른스럽다, 고요하다, 멋지다, 공상맞다

<참고> ‘-롭-’, ‘-되-’, ‘-답1-’, ‘-답2-’, ‘-스럽-’ 비교

-
- ‘-롭-’, ‘-되-’, ‘-답1-’은 중세국어 단계에서 단일형태소의 이형태였는데, 현대 국어 화자들은 각각 다른 접미사로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명사나 명사성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들이다. 그 의미도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도로 유사하다. ‘-스럽-’도 명사나 명사성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의미상 유사하지만, 이들보다 생산성이 높다.

① ‘-롭-’ : 명사를 어근으로 가지는 것이 일반적. ‘새롭다’의 경우 ‘새’가 현대국어에서 명사로 쓰이지

않지만 중세국어에는 명사로 쓰였다.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라는 제약을 갖는다. 가장 많은 어휘에서 나타나지만, 생산성은 높지 않다.

- ② ‘-되-’ : 명사를 어근으로 갖는 것이 일반적. 자음으로 끝나는 어근 뒤에만 쓰일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매우 낮아 ‘-롭-’보다 더 적은 예에서만 나타난다.
- ③ ‘-답₁-’ : 명사를 어근으로 하며, 어근의 끝소리가 자음이라는 제약.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매우 낮음. 위의 예가 거의 전부.
- ④ ‘-답₂-’ :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 모두 결합하며, 그 의미도 ‘어근의 자격을 갖추’ 정도여서 ‘-답₁-’과 차이가 난다. 또한, “그 집은 [재벌이 사는 집]답지 않게 평범하게 꾸며져 있었다.”에서 보는 것처럼 단어뿐 아니라 구에 결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답₂-’는 ‘-답₁-’과 다른 요소로 보아야 한다.
- ⑤ ‘-스럽-’ :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과 모두 결합하며, 그 의미는 ‘-롭-’, ‘-되-’, ‘-답₁-’과 유사하게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도이다. 그러나 ‘-롭-’, ‘-되-’, ‘-답₁-’보다 훨씬 다양한 유형의 어근과 결합한다(어른스럽다, 촌스럽다, 자유스럽다, 귀염성스럽다 등). ‘-롭-’, ‘-되-’, ‘-답₁-’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추상명사와 결합하는 것과 대비된다. ‘-스럽-’은 제약이 적을 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의 형용사 파생접미사 중 가장 생산성이 높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사람 이름 뒤에 ‘-스럽-’을 붙여 ‘OO스럽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스럽-’이 인성명사에 붙을 수 있다는 사실과 생산성이 높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저지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자유롭다, 평화롭다 : 자유스럽다, 평화스럽다). ‘-스럽-’의 의미는 ‘-답₂-’와 차이를 보인다. ‘어른스럽다’(어른이 아니면서 어른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어른답다’(어른이면서 어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고영근·구본관(2008 :221~224)]

ㄹ. 부사 파생법

- (ㄱ) -이 : 길이, 높이, 같이/ 깨끗이, 느긋이/ 나날이, 집집이/ 일찍이, 더욱이
- (ㄴ) -히 : 가만히, 고요히, 조용히
- (ㄷ) -오/-우 : 도로, 너무, 자주

ㅁ. 조사 파생법 : 같이, 부터, 조차, 밖에

2) 합성어

- 개념 :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 종류

(1) 어근과 어근의 의미 결합방식에 따라

대등 합성어	두 어근의 결합 방식이 대등한 합성어. 예) 앞뒤, 똥오줌, 논밭, 여달다
종속 합성어	앞 어근이 뒤 어근에 대해 관형어 또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합성어. 예) 돌다리, 도시락밥, 빗물, 갈아입다, 돌아가다, ...
융합 합성어	두 어근과는 완전히 다른 제 3의 의미를 지니는 합성어. 예) 춘추, 연세, 입방아, 한번, 안되다, 못되다, ...

(2) 합성어의 품사 기준에 따라

- ① 대체로 합성어의 품사는 가장 나중의 어근이 가지고 있는 품사에 따라 결정된다.(예는 뒤의 표 참조)
- ② 예외
 - ㄱ. 명사+명사 → 합성부사 : 밤낮
 - ㄴ. 형용사+형용사 → 합성관형사 : 기나긴
 - ㄷ. 관형사+명사 → 합성감탄사 : 웬걸
 - ㄹ. 명사+동사 → 합성형용사 : 맞나다, 줄기차다, 풀죽다
 - ㅁ. 부사+동사 → 합성형용사 : 잘나다, 막되다, 덜되다, 못나다

(3) 통사적 구성 방식과 일치 여부에 따라

- ① 통사적 합성어 :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법으로 형성된 합성어. 두 어근 또는 두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에서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한다. 국어 문장의 어절 또는 구의 배열 방식은 아래와 같다.³⁾

문장에서 어절/구의 배열	합성어의 구조
주어+목적어+술어	주어+서술어/ 목적어+서술어 → 명사+동사, 명사+형용사
명사+(조사)+명사	명사+조사+명사, 명사+명사
수식어+피수식어	관형사+명사, 부사+용언
용언+어미+용언/체언	용언+어미+용언, 용언+어미+체언

- ② 비통사적 합성어 : 국어의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 방법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형성된 합성어. 두 어근 또는 두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우리말의 문장에서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 ㄱ. 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 예) 용언 어간 + 체언 → 늦잠, 늦더위, 껌쇠, 감발, 덮밥, 접칼
 - <비교> 작은집, 큰집, 갈림길, 빈집
- ㄴ.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연결어미가 생략된 합성어
 - 예) 용언 어간 + 용언 → 여닫다, 우짚다, 검푸르다 ; 뛰놀다, 잡쥘다
 - <비교> 들고나다, 돌아가다
- ㄷ. 부사가 체언 앞에 온 합성어
 - 예) 부슬비, 혈떡고개, 출랑새 <비교> 못나다, 막되다
- ㄹ.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한자어
 - 예) 독서, 급수, 등산(비통사적) : 일몰, 필승, 고서(통사적)

3) 명사 뒤에 조사의 연결은 선택적이지만, 용언에 어미의 연결은 필수적이다.

3) 한자어의 단어 형성

- (1) 한자는 글자마다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글자 하나가 하나의 형태소의 자격을 지닌다.
- (2)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한자어는 대부분 의존형태소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여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다.
- (3) 대체로 한문 문장 구조와 일치하는 구성법인 '서술어 + 목적어'의 형태이거나 '서술어 + 부사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 (4) 한자어는 분명한 접사와의 결합을 제외하고는 2음절 이상의 말은 모두 합성에 속한다.
- (5) 주로 네 글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한자어는 그 중 몇 글자를 따서 약어(略語)를 만들어 쓰는 것이 보통이다.
- (6) 접미사 '-적(的)' : 접사의 기능이 가장 분명한 말로 '그 상태로 되거나, 그런 성격을 띠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적(的), -성(性), -답다, -장이, -쟁이, -동이, -내기, -배기, -빼기'로 만들어진 합성어와 파생어의 의미]

- -적(的) : '그 상태로 되거나, 그런 성격을 띠는'의 뜻을 나타냄. 고유어엔 붙지 못하고 한자어에만 붙으며 '-스럽-'이 붙는 말엔 붙지 못한다. 또한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말과는 결합하지 못한다.(동해적) 조사를 취할 때는 서술격 조사 '이다', 부사격조사 '으로', 보격 조사 '이'에 한정된다.
예) 예술적(예술의 특성을 가진 것), 인간적(사람다운 성질이 있는 것), 과학적(과학의 이치나 체계에 맞는 것)
- -성(性)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성질, 경향'을 나타냄.
예) 도덕성(도덕적인 성품, 또는 그 성품을 갖추), 인간성(사람다운 성품이나 성질), 민족성(한 민족의 독특한 성질)
- -답다 : 사람 명사 뒤에 붙어 '~의 자격이 있음, ~의 신분이나 특성에 잘 어울림'의 뜻을 나타냄.
예) 사람답다(인격이나 언행이 사람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 인간답다(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다.)
- -장이 : 명사에 붙어 '그것을 직업으로 만들거나 하는 사람'을 뜻함.
예) 간판장이(간판을 그리거나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땀장이(깨지거나 구멍이 난 그릇이나 기구를 고치거나 때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용기장이(용기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쟁이 : ①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행동, 직업 등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거나 낮추어 이르는 말. ② '담쟁이, 소금쟁이'의 '-쟁이'에서는 생물 명칭으로 쓰이고, '골목쟁이'에서는 '골목에서 좀더 깊숙이 들어간 어느 곳'을 의미함.
예) 멧쟁이(멧있거나 멧을 잘 부리는 사람), 허풍쟁이(말이나 행동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과장하여 쓰는 사람), 무식쟁이(지식이나 식견이 부족한 사람), 요술쟁이(요술을 부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 점쟁이(점을 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동이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나타냄.
예) 귀염동이(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또는 매우 사랑을 받는 아이), 막내동이('막내'를 다소 귀엽게 이르는 말)
- -내기 :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거나, 일부 어간이나 접두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나타냄.
예) 시골내기(시골에서 나서 자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신출내기(어떤 일에 처음 나서서 일이 서투른 사람)
- -배기 : 어린 아이의 나이를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나타내거나,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 혹은 그런 물건'을 나타냄.
예) 두 살배기(두 살 먹은 아이), 나이배기(겉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진짜배기('진

짜'를 속되게 이르는 말), 단 '뚝배기, 학배기(잡자리 애벌레)'는 각각 단일 형태소로 보아 '-배기'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

- **-빼기** : 몇몇 명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나타냄.

예) 밥빼기(동생이 생긴 뒤에 샘내느라고 밥을 많이 먹는 아이), 악착빼기(몹시 악착스러운 아이), 곱빼기.

[7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 pp.121-122]

[한글 맞춤법 : 된소리 접미사]

제54항 '-군/-꾼', '-갈/-깎', '-대기/-때기', '-곰치/-꿈치' 는 각각 '-꾼', '-깎', '-때기', '-꿈치'로 통일하여 적는다.

노름꾼, 나무꾼, 사냥꾼; 때깎, 맛깎, 색깎; 배때기, 나무때기, 손목때기;
발꿈치, 팔꿈치, 발뒤꿈치

<참고> '-배기/-빼기'는 구분하여 적는다.

○ 나이배기, 육자배기, 혀짤배기, 언덕배기/ 고들빼기, 곱빼기, 억척빼기

4) 새말 :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언어 사회에 새로이 등장하는 어휘.

(1) 새말 만들기의 어려움

① 새로운 말소리를 사용할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기존의 말을 활용할 경우 기존의 의미가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최근에는 대부분 외래어,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국어 문제가 되고 있다.

(2) 새말의 생성 원인

①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등장할 때, 이것을 지칭하기 위해

②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던 어휘의 표현력이 감소되었을 때, 그것을 보강하거나 신선한 맛을 내기 위해

[지도서 : 새말의 유형]

1. 고유어로 만들어진 새말의 유형

(1) 새로운 어형을 창조하는 경우 : 짹짹, 푹푹, 통통배, 차려, 쉬어, 대한민국, 이남, 이북, 남한, 북한

(2) 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단어 : 도시락, 건널목, 덧셈, 뺄셈, 모눈종이, 지름, 반지름, 흰피톨(백혈구), 넘보라살(자외선), 제곱, 세제곱

(3)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유통된 말들인데, 기존의 단어들을 합성하여 새말에 해당하는 형태를 만든 경우 : 통조림, 불고기, 꼬치안주, 가락국수, 손톱깎이, 소매치기, 꼬치, 병따개

※ 새말을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외래어, 외국어의 비율을 줄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2. 최근 생겨난 새말의 형성법과 배경

새 말	뜻	만드는 과정	발생 배경
강퇴	있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 나가도록 함.	'강제 퇴장(당하다)'의 줄인 말	컴퓨터 통신 대화방
개구리 주차	보도 위에 어느 한쪽에 차바퀴를 올려놓는 주차	'개구리'와 '주차'를 합친 말	주차 공간의 부족

거품론	현상 따위가 일시적으로 생겨 꺾데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 대한 이론이나 경향	우리말 '거품'과 한자어 '론'을 합친 말	증권, 경제
게임방	각종 게임기와 컴퓨터 시설을 갖추고 그 자리에서 게임이나 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둔 곳	외래어 '게임'과 한자어 '방'을 합친 말	문화, 생활, 컴퓨터
골뱅이	컴퓨터 자판의 @를 가리키는 말.	인터넷 주소에서의 'at' 표시로, 그 모양을 본떠 지음	컴퓨터, 인터넷, 전자우편
교통카드	대중 교통 수단인 시내 버스나 전철을 탈 때 요금 대신 사용하는 카드	한자어 '교통'과 외래어 '카드'를 합친 말	대중 교통 요금 납부 수단의 변화
냄비투자	쉽게 달구어지고 쉽게 식는 냄비에 빗대어 충분한 지식이나 고려 없이 쉽게 하는 투자를 이르는 말.	우리말 '냄비'와 한자어 '투자'를 합친 말	증권, 경제
라이브카페	관객들 앞에서 현장감 있게 노래하고 연주하는 음악 공연이 있는 카페	영어 '라이브'와 프랑스어 '카페'를 합친 말	문화
러브콜	재능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하여 좀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선수들을 부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영어 '러브'와 '콜'을 합친 말	스포츠
물타기	자기편의 손실이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명사 '물'에 동사 '타다'를 합치고, 이에 접사 '-기'를 붙인 파생어	경제, 정치
블루칩	주식 시장에서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형 우량주를 통틀어 이르는 말	포커 게임에서 사용되는 백색, 적색, 청색의 칩 가운데 청색이 가장 높은 것에서 따온 표현	경제, 주식
사춘기(思秋期)	중·장년층이 새롭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를 이르는 말	사춘기의 '춘'대신 '추'를 사용하여 대비적으로 만든 말	생활, 문화
빼기포	축구나 농구, 야구 경기 따위에서 상대팀이 더 이상 승부를 뒤집을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골이나 홈런.	우리말 '빼기'에 한자어 '포'를 합쳐 만든 말	스포츠
아바타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고대 인도어로 분신이나 화신을 뜻하는 말을 따온 것	컴퓨터 통신 대화방
작업창	컴퓨터 프로그램 중 윈도 프로그램에서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화면을 이르는 말	한자어 '작업'과 윈도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서 가져온 '창'을 합친 말	컴퓨터
캐시백 서비스	어떤 것을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이후에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현금 가방(주머니)'이라는 뜻의 영어 '캐시백'과 '서비스'를 합친 말	경제, 문화, 생활
트라이아웃	소속 팀 선수로 선발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나 실력 따위를 시험하는 일	'시험하여 보기, 적격성 검사'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트라이아웃'을 그대로 가져옴.	스포츠
황제주	고가의 주식, 또는 고가의 주식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	고가의 주식을 비유적으로 일컫기 위하여 한자어	경제, 주식

‘황제’라는 단어를 가져와
합친 말

3.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새말

새말	기존의 의미	새로운 의미
교통 정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차의 통행을 규제, 지시, 유도하는 일	어떤 일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뒤에서 손을 씬.
군살 빼기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 따위 때문에 찐 군더더기 살을 빼는 행위	기업이나 사업체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자산과 규모를 줄이는 행위
떡값	① 떡을 사고 지불하는 값 ② 설이나 추석 때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번개	구름과 구름, 구름과 대지 사이에서 공중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을 이르는 말

(7차 문법 교사용 지도서, 174~176)